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교회교육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293장 ..... 다같이**

1.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2.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3.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4.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생활 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후렴)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 도 ..... 가족 중****성경봉독 ..... 창세기 37:1-11 ..... 인도자****설 교 ..... “요셉의 채색옷” ..... 인도자****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소유하지 않고 소통하며 나누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2.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청년 단기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3. 담임목사님 안식월 동안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요셉의 채색옷

창세기 37:1-11

황덕형 목사(서울신학대학 총장)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창30.22-24). 그 이름자체가 라헬의 경쟁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요셉은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유력한 상속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 정도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성경의 다음 기사들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특권을 과연 그가 잘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특출한 재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을 감독하기 위해 다니던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버릇없이 굴면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일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특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그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37.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는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모와 고난이 그에게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작에서 비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9장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낮아짐으로써 진정한 인물이 되어 갑니다. 慾以大者 當爲人役 높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가 종이 되니 높아졌습니다. 그가 낮아지니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그 권력을 정의롭게 씁니다. 부당한 유혹에 대하여 요셉은 자기 청지기의 옷을 버려둡니다: 창 39.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디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번에는 요셉이 스스로 그 권력을 버립니다. 옷을 벗어두고 나온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창 39장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앞에 종이 되고 사람들에게 종이 됩시다!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